

I. 주간 경제 동향

1. 경제 개관

- (외환시장) 원/달러 환율은 상승과 하락 요인의 혼조 속에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과 이월된 월말 네고 자금 유입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나, 여전히 1,310원 대에 안정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상태
- (자금시장) 대내외적 호조건의 지속, 회사채와 국채의 스프레드 확대에 따른 회사채 매수세 등에 힘입어 회사채 수익률이 소폭 하락하여 9%대 재진입
- (주식시장)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주가 상승세가 지속, 종합주가지수는 410 포인트대로 진입함. 그러나 엔화 약세에 따라 11월 10일에는 주가가 대폭 하락함

□ 외환시장

- (환율 소폭 하락) 상승과 하락 요인의 혼조 속에 소폭 하락
 - 11월 6일 현재 원/달러 환율은 1,312.0원을 기록
 - 원/달러 환율은 상승과 하락 요인의 공존으로 급등이나 급락없이 여전히 1,310 원대에 안정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상태임
 - 엔/달러 환율의 소폭 상승 및 기업의 외채 상환용 달러 수요와 환율 방어를 위한 공기업의 달러 매수 등 정부의 간접 개입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과 이월된 월말 네고 자금 유입으로 원/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함

□ 자금시장

- (지표 금리 소폭 하락) 회사채 수익률이 9% 대로 재진입
 - 11월 7일 현재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은 9.50%를 기록함
 - 실물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통화공급 확대와 금리 인하 정책 및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, 국채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국채와 회사채간의 스프레드가 확대됨에 따른 회사채 매수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회사채 수익률이 11월 3일에는 9.50%까지 하락함
 - 그러나 단기 급락에 따른 경제 심리와 회사채 발행 물량 증대 등에 따라 거래 자체가 소강 상태를 지속하면서 11월 3일 이후 보합세가 계속되고 있음

- 회사채 매수세 확대로 국채와 회사채간의 스프레드는 1.1%p로 축소됨
- CD 및 CP 유통수익률은 7%대를 기록

□ 주식시장

- (주가 상승세)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주가 상승세가 지속됨
 - 최근 8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며 410포인트대로 진입함
 - 근래 들어 한국 경제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외국 주요 기관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잇달아 발표되는 상황에서, 모건스탠리 증권이 신흥시장 펀드의 한국 투자비중을 신규 설정(2%)하는 한편, 유럽의 파이낸셜타임즈지수(FT Index)도 곧 한국 증시를 신규 편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한국 주식시장으로 집중되고 있음
 - 이에 따라 월중반 선물과 연계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대규모로 출하됨에 따라 상승세가 주춤했던 주가는 하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다시 급등세를 나타내게 됨
 - 올 들어 11월 6일 현재 외국인들의 주식 순매수 규모는 5조 1,831억 원임. 10월 중에만 총 6,855억 원을 기록하였는데, 이는 월별 기준으로 지난 2월(2조 1,802억 원) 이래 최대 규모임. 11월 1~6일 사이에도 3,149억 원을 순매수함
 - 선진국의 금리 인하와 내년 하반기 이후 국내 경기의 회복 전망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 상승세를 부추김
- (11월 10일 주가 급락) 엔화 약세에 따라 하락세로 반전
 - 엔/달러 환율이 120엔대를 넘어서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세로 돌아섰고, 최근의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매물이 대규모로 쏟아져 나옴에 따라 주가가 대폭 하락함
 -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가 엔/달러 환율의 향방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당분간 엔화 약세 기조가 반전될 가능성도 높지 않으므로, 주가도 추가 상승의 탄력을 받지 못한 채 당분간 조정 국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

(채 창 균 ckche@hri.co.kr ☎724-4031)